

星州邑城의 空間構成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the Seong-Ju Eupseong

이강국*

Yi, Gang-Kook

김찬영**

Kim, Chan-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patial arrangement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Seoung-Ju Eup around the 19th century by analyzing a map called Seoung-ju eupgido, made in the late Chosun period. The study analyses the significant elements consisting of the spatial arrangement such as geographical considerations, the street system, and the location of mainfacilities for this purpos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in that the study uses a contemporary map showing the actual spatial arrangement in the period, instead of using any historical records or written documents that have been mainly used for the same purpose by most researcher so far.

Keywords : Eupseong, Spatial Composition, Seong-Ju Eupgido, Street Structure

주요어 : 읍성, 공간구성, 성주읍기도, 가로체계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읍성은 군사적·행정적인 기능이 복합되어 지방의 주요 거점에 축조된 성곽이다. 조선시대 읍성은 근대화과정에서 많은 변천과정을 겪었지만 기본적인 도시 및 건축계획상의 공간구조체계는 현대도시의 母體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이 읍성을 중심으로 현재의 도시공간구조 형성 과정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발전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소도시는 자의적·타의적으로 읍성을 파괴하고 확장된 것으로 그 원형이 남은 예는 소수이고, 자료 및 사료마저 한정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특히 조선 후기 성주읍성의 공간구조나 건물배치구성에 관한 자료는 소수 문헌과 고지도를 통해서만 부분적인 복원

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문헌과 고지도로만 전모를 밝혀 낼 수 있는 성주읍성을 대상으로 공간구조 및 배치구성을 분석하고, 아울러 상호 시기적인 변화추이와 특성을 비교·검토하였다. 또 근대화·도시화과정에서 가로체계, 공간배치의 변화양상도 살펴보았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성주읍성에 관한 자료는 고문헌과 고지도로 한정된다. 고문헌 자료로는 『慶尙道續撰地理志』가 최초의 예이고, 그의 『新增東國輿地勝覽』, 『京山志』, 『星山誌』, 『星州牧邑誌』 등이 있다. 고지도 자료는 1830년에 제작된 『星州邑地圖』와 19세기 중엽의 제작으로 추정되는 『星州舊地圖』,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제작된 『星州邑基圖』가 있다. 『성주목읍지』 『읍지도』는 목판본지도이고, 『성주군지』 『성주구지도』와 서울대박물관소장의 『성주읍기도』는 회화체 지도이다. 이들고지도중 『성주목읍지』 『읍지도』와 『성주군지』 『성주구지도』는 성주읍 전체의 方里, 산세, 물길, 도로와 더불어 읍성의 형태와 규모 그리고 성

*정회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경북대 건축학부 박사과정

**정회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공학박사

내·외부에 배치된 주요 건물이 개략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한편 「성주읍지도」는 읍성의 북동쪽일부가 잘렸지만, 외부경관과 형태, 내·외부의 가로망 체계, 주요건물의 배치구성이 正面俯瞰法¹⁾으로 매우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된 점이 앞서 고지도와는 크게 다르다. 연구방법은 조선시대 지방 도읍중 성주목의 읍성에 관한 고문헌과 고지도를 대상으로 내·외부의 가로망과 건물 배치 및 구성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시간적·공간적인 변화추이와 특성을 현장 조사를 통해 서로 비교해 보았다.

3.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는 읍성을 중심으로 한 건축학적 접근, 읍의 공간구조 및 구성원리에 관한 도시개발 및 계획학적 접근, 특정지역에 대해 정치·경제·문화·역사·자연과 관련된 경관의 형성과정에 대한 문화역사·지리학적 접근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성과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李相球²⁾는 「輿地圖書」에 나타난 읍성 110개소를 선별하여 읍성의 분포, 입지, 형태, 규모, 간선도로망, 공공시설물의 종류와 위치등을 분석하였다. 金哲洙³⁾는 청주·전주·대구를 대상으로 읍성의 기본 공간구조를 파악하려 하였다. 芮明海⁴⁾는 대구부에 대해서 府城 및 읍성내 간선도로와 공공시설 배치를 통하여 대구읍성의 공간을 규명하였다. 金善範⁵⁾은 울산읍성과 언양읍성을 대상으로 읍성내의 공공시설배치, 위락과 성곽규모, 읍성의 공간적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전통공간 보전의 필요성과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金鐵喜⁶⁾는 청주읍성을 대상으로 읍성의 입지와 풍수, 형태와 규모, 가로망

과 시설물 등을 동시대 읍성들과 비교분석을 통해 청주읍성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姜賢⁷⁾은 조선후기 사회변동에 따른 도시화 과정을 중심으로 읍성의 공간구조 및 건축물의 변천을 계획적 요소(성벽, 간선도로, 관아, 기타 공공시설물 등)와 비계획적 요소(거주지)로 대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柳應敎·朴裨宣⁸⁾은 남원읍성의 공간구조 특성을 군사적 기능, 유교적 제사제도, 가로망으로 대별하여 분석고찰하였다. 朱鍾元⁹⁾은 읍성에서 지방 중소도시로 발달한 김해·남해·상주·순천·안동·전주·청주를 대상으로 도시화 이전의 읍성의 규모, 간선도로 체계 등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공간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외 도시계획 분야¹⁰⁾와 지리학 분야¹¹⁾, 古邑에 대한 연구 등도 있다. 우리나라 도시역사 및 읍성에 대한 연구¹²⁾는 일제시대 식민지 정책수행을 위한 일본학자들의 연구보고서 등이 그 시초이며, 한국학자들에 의한 연구는 지리학, 도시학, 역사학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에 대한 역사성 인식의 증가로 1980년 이후 도시 및 건축분야에서 일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현존 유구가 적어 문헌조사연구에 치중한 것이 많다.

II. 이론적 고찰

1. 읍성의 정의 및 분류

“邑”은 고을의 의미로 행정구역 명에 붙여 “京邑”, “府邑”, “州邑”, “郡邑”, “縣邑” 등으로 불리

1) 정면부감법이란 18세기에 자연경관을 배경으로하여 궁궐이나 도읍 또는 관아 등을 시각적으로 사실감있게 묘사한 화법을 말한다.

2) 이상구(1984), 조선중기 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3) 김철수(1984), 한국성곽도시의 형성·발전과정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홍익대 학론.

4) 예명해(1991), 조선시대 대구읍성 관한 기초연구(1), 국토계획 제26권 제3호, pp. 165-177.

예명해(1991), 조선시대 대구읍성 관한 기초연구(2), 국토계획 제26권 제4호, pp. 21-39.

5) 김선범(1989), 지방도시의 전통공간보전을 위한 기초연구-울산읍성과 언양읍성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24권 제2호, pp. 79-93.

6) 김진희(1994), 조선시대 청주읍성의 특성분석, 충북대 석론.

7) 강 현(1995), 읍성의 공간구조 및 건축물 변천에 관한 연구-조선중기 사회변동에 따른 도시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론.

8) 유용교·박창선(1997), 남원읍성의 공간구조특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I)-공공시설물과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국토계획과 제32권 제5호, pp. 61-73.

9) 주종원(1988), 읍성으로부터 발달한 지방중소도시의 공간구성 특성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23권 제1호, pp. 21-33.

10) 최병선(1973), 한국고도읍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이조시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론.

황기원(1987), 조선시대 향읍의 공공공간, 공간, pp. 119-129.

11) 장길수(1989), 공주의 역사지리적 고찰, 공주사범대 석론.

12) 이성학(1981), 한국 고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대도호부와 도호부에 관하여-경북대 교육대학원 논문집 제13집, pp. 73-106.

운다. 따라서 “邑”은 도시적 정주 체계를 총칭하는 것이며, “邑城”은 사회적 변화에 의한 정치, 행정, 경제적인 의미를 지닌 도시적 공동체를 지칭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성곽의 분류는 주로 사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도시계획적 측면의 분류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성곽의 구분기준은 입지, 재료, 형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표 1>.

표 1. 읍성의 분류

구분		내용
立地	해안중심의 읍성	· 방어시설로 해안을 따라 축조 · 고려 말, 조선초기에 外敵침입에 대비
	주요 교통로의 읍성	· 군현단위(지방중심)에 조영 · 지방의 치도 중심지로 이용 · 유사시 방어 시설로 이용
材料	토성	· 경상도의 읍성은 대체로 조선초기에는 토성이었으나 1591년 읍성개축시에 석성으로 개축된 경우가 많음
	석성	
	토·석성	
	벽성	
形態	책성	
	방형	
	원형	
	장방형	
	부정형	· 입지하는 지형조건이나, 자연적인 방어력을 고려하여 선정되었기 때문에 넓은 평야에 위치할수록 방형과 원형에 가깝게 축조

시대이후로 교통, 통신상의 요충지로 여겨왔다. 특히 삼국시대에는 가야연맹체의 일국이었으나 신라에 복속되어 對백제세력의 방어 및 공략의 전진기지로 이용되었으며, 후삼국시대에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었다¹⁴⁾. 이런 이유로 고려때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성주를 중심으로 칠곡, 고령, 대구, 무주, 김천의 일부를 아우르는 경상도 서남지역의 治道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조선초·중기까지 지속되었으나 1595년에 대구로 慶尙監營이 移設되면서 차츰 圈城

표 2. 성주의 연혁

연대		내용
시대	년대	
부족국가		6가야국의 성산 가야국
신라시대	경덕왕16년 (757)	신안현으로 개칭
고려시대	태조23년 (940)	경산부로 개칭
	경종6년 (981)	광평군으로 강등
	성종14년 (995)	대주로 개칭
	현종9년 (1018)	경산부로 승격
	충렬왕21년 (1308)	성주목으로 승격
조선시대	충선왕2년 (1310)	경산부로 강등
	태종1년 (1410)	성주목으로 승격
	선조26년 (1593)	성주목 팔거현에 경상감영 개설(3년후 대구로 이설)
	고종32년 (1895)	성주군으로 개칭

2. 星州의 연혁과 읍성 입지

(1) 星州郡의 연혁

성주군은 경상북도 서남부에 위치한다. 지형은 북서쪽은 고산지대이고 동쪽은 낮은 산지로 둘러 쌓여 전체적으로 분지형이다. 水系는 서북의 독용산에서 발원한 大伽川이 남서쪽으로 흘러 낙동강의 중하류에 유입되고, 염속산에서 발원한 伊川과 백마산에서 발원한 白川은 월항면에서 합류하여 군의 동쪽에 흐르는 낙동강의 중상류로 유입된다. 이러한 산세와 수계에 의한 자연지리적·환경으로 천변에는 발달된 충적평야가 있어 정주지로서의 중요한 생산경제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이곳에서 확인된 많은 각종 유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¹³⁾. 역사적으로는 선사

표 3. 읍성에 관한 고문헌 기록

관련문헌(년도)	내용
『新贈東國輿地勝覽』 (1530)	邑城土築周四千五十二尺高三尺羅閣五十二間內有七泉四池正德庚辰改築石城周六千七百五十五尺高九尺萬曆辛卯改修女牆五百作溝周七千五百五十尺廣七尺深五尺有東西北三門
『京山志』 (1677)	邑城土築周四千五十二尺高三尺羅閣五十二間內有七泉四池正德庚辰改築石城周六千七百五十五尺高九尺萬曆辛卯改修女牆五百作溝周七千五百五十尺廣七尺深五尺有東西北三門
『星州牧邑誌』 (1832)	城池邑城周回千七百五十五尺高九尺有東西北四門羅閣一百三十四間內有七泉二池舊以土築德庚辰改築石城萬曆辛卯改修女牆作溝
『星山誌』 (1937)	舊土築正德庚辰改築石城周六千七百五十五尺高九尺萬曆辛卯改修女牆五百作溝周七千五百五十尺廣七尺深五尺有東西南北四門有七泉四池荒廢已久今西北尚有遺址東門牧使金鏞重建稱纓雲樓踴然獨存甲午東亂被燒

13)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星州郡)』, 2000, 대가야천, 이천유역에는 支石墓 및 生活遺蹟, 古·古墳, 城址 등 청동기~조선시대에 걸친 유적이 많이 산재해 있다.

14) Ibid 13) 慶 星州郡, 『星州郡誌』 1998. 李舜欽·裴定坤, 『星山誌』, 1937

표 4. 고지도 자료

지도명	성격	내용
『星州牧邑誌』 <邑地圖>	목판본 지도	성주군의 산세, 도로, 방리, 주요 공공 및 제사건물 등을 간략히 표현함. 읍성은 화면 중앙 우측에 편재하여 타원형 성벽과 4개의 성문이 있다.
『星州郡誌』 <星州舊邑誌> (19세기 중엽)	회화체 지도	성주군의 지형과 산세, 지명, 도로, 수계 등을 회화체로 표현함. 읍성은 화면 중앙 우측에 편재해 타원형 성벽과 1개의 성문이 있어 성의 위치와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서울대 박물관소장 <星州邑基圖> (19세기 말)	회화체 지도	읍내의 산세와 읍성 안팎의 행정, 공공, 제사건물, 도로 등을 중심으로 산수화 풍으로 표현함. 수목의 담채를 이용해서 원근감을 표현하였고, 공간구성을 매우 상세히 표현함.

표 5. 읍성의 규모와 시설

관련문헌	재료	둘레	높이	시설물	기타
『新贈東國 輿地勝覽』 (1530)	토축	4,502尺	13尺	羅閣-52間	샘 7, 못 4개소
	석성	6,755尺	9尺	女牆-500作 溝-둘레 7,550尺, 넓이 7尺, 깊이 5尺 城門-동·서·북, 三門	
『京山志』 (1677)	『新贈東國輿地勝覽』와 내용동일				
『星州牧邑 誌』 (1832)	토축 → 석성	6,755尺	9尺	女牆-500作 溝-둘레 7,550尺, 넓이 7尺, 깊이 5尺 城門-동·서·남·북 四門 東門은 1894년 동학농 민전쟁 때 소실	샘 7, 못 4개소 황폐
『星山誌』 (1937)	城池-둘레 토축→석성(1591) 女牆 改修, 溝 설치	1,755尺		城門-동·서·남·북 四門 羅閣-134間	샘 7, 못 2개소

이 축소되었다<표 2, 3, 4>.

(2) 성주읍성의 입지와 축성

읍성은 초기 府, 牧, 郡, 縣의 소재지에 외척집입을 대비해 만든 군사적 공간으로 주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발생되었다. 그후 읍성이 취락으로 발전하면서 생활중심권화되어 군사, 행정, 상업기능의 중심지로 변화되었다. 성주읍성은 현재 성주읍 중심부인 경산리·예산리·성산리·백전리 일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북쪽 4 km 가량 떨어진 초전면 印懸山(해발 185 m)을 진산으로 하고, 남동쪽 3 km에 위치한 星山(해발 389 m)을 안산으로 삼았다. 따라서 진산이 안산보다 낮고, 주위는 해발 100 m 미만의 나지막한 야산으로 둘러진 작은 분지내에 읍성이 위치한 셈이다. 그리고 북서쪽에서 유입된 伊川이 읍성 남쪽을 돌아 동북쪽으로 빠져 나가는 수계체계를 이루고 있어 천혜의 요새지로 충분하다.

III. 읍성의 형태와 공간구조

1. 읍성의 규모와 평면형태

읍성의 규모와 시설자료는 『성주목읍지』에 따르면 둘레는 6,755尺으로 약 3.0 km에 달하는 대규모(6,000~10,000尺)의 읍성에 해당된다<표 5>.

읍성의 평면형태는 일반적으로 원형, 방형, 부정형으로 분류되며, 원형, 방형, 부정형 순으로 많다. 성주읍성의 평면형태는 첫째, <고지도> 자료, 둘째 취

근 현장조사자료¹⁵⁾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이들 자료에서 평면형태는 모두 장타원형이다. 그러나, <고지도>자료인 <성주읍지도>와 <성주구지도>는 타원형, 『여지도서』에는 원형으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1, 2, 3, 4, 5>.

한편 현장조사를 기초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보고서(이하 지표보고서)와 김한기 논문에서 제시된 위곽추정도는 타원형이다. 이들 두 자료에서 타원형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비슷하나 성벽 축조구간, 성문 위치, 가로망체계 등에서 서로간에 차이가 있다. 먼저 성벽 축조구간에 대해서 동문~남문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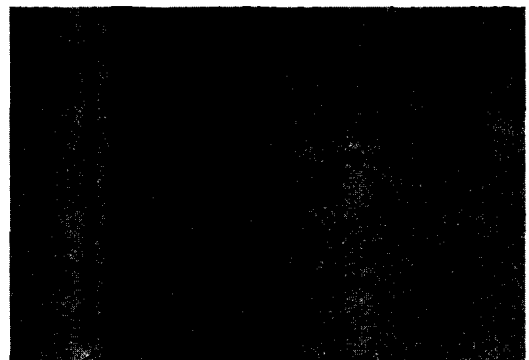


그림 1. 여지도서의 성주읍 (18세기 중엽)

15)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星州邑城地表調査報告書』, 2002



그림 2. 성주읍지도 (1830년)



그림 3. 성주구지도 (19세기 중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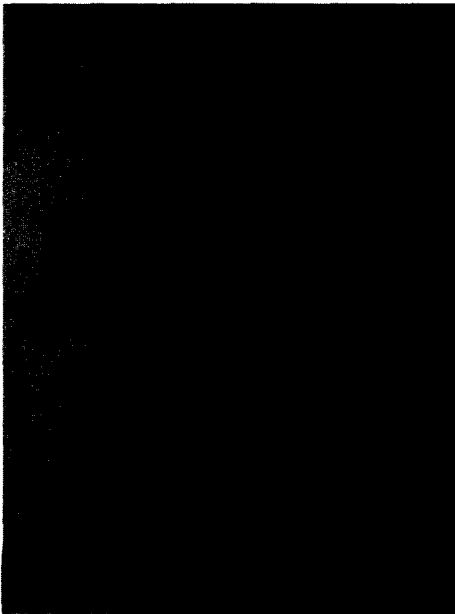


그림 4. 성주읍기도의 성주읍성 (19세기말~20세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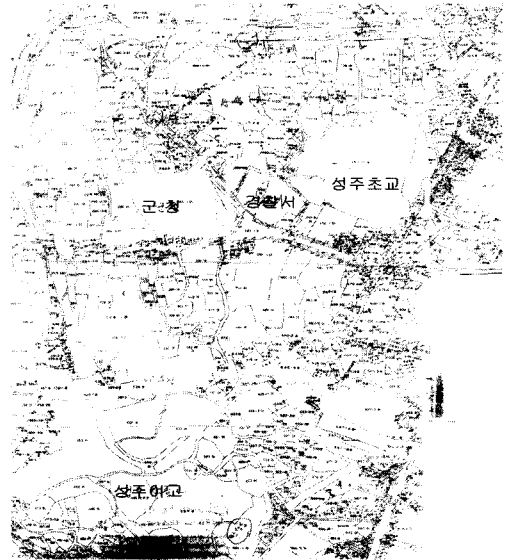


그림 5. 일제시대 읍내 지적도 (20세기초)

은 지표보고서가 현재 성주초등학교 정문에 있는 농협창고 옆 사거리 주변에서 관왕묘 앞 사거리 주변 일대까지 거의 직선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김한기는 임협과 축협사이의 사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를 가로질러 개운사 북쪽 사거리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축조구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때 성문의 위치도 동문지는 지표보고서에서는 농협창고와 농협사이의 사거리(경산리 40-1, 43-4일대)로 추정하였고, 김한기는 임협과 축협사이의 사거리로 추정하고 있다. 남문~서문 구간은 조사보고서와 김한기는 모두 현재 관왕묘 앞 사거리에서 성주여중교를 가로질러 서문고개에 이르는 약 500 m 거리를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문지는 서문고개인 경산리 295-1·2, 295-5번지 일대로 추정한 점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다. 서문~북문 구간은 조사보고서에는 서문지에서 석양촌과 불미골을 동글게 돌아 군청에서 세록골로 넘어가는 고개너머까지 약 550 m 구간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김한기는 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추정도에서 한국통신 성주전화국 앞 삼거리까지 연장된 구간을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문지의 위치도 조사보고서에서는 세록골 고개인 예산리 234번지 일대, 김한기는 한국통신 성주전화국 앞 삼거리 일대로 서로 다르다. 북문~동문 구간은 조사보고서에서는 북문지에서 봉두산 정상부에 위치한 임정사 뒤편을 돌아 성

주군민회관을 거쳐 동문지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는 약 500 m 거리이다. 그러나 김한기는 북문지에서 농협 창고를 돌아 동문지까지 거의 직선으로 연결되는 추정구간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성주읍성에 대한 두 자료의 추정위곽도에서 추정 평면형태는 비슷하나 구간별 세부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추정 성문지도 서문만 동일할 뿐 그 외는 서로 다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읍성 위곽추정도를 일제강점기때 제작된 읍내 지적도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문~남문 구간은 축협 주변 일대에서 남쪽의 중앙초등학교에서 반원으로 돌아 시장 부근과 개운사 북동쪽의 삼거리까지로 추정된다. 이때 동문지는 김한기가 추정한 축협 부근의 사거리로 일치한다. 남문~서문 구간은 앞서 제시한 두 자료와 일치하며, 남문지 위치도 동일하다. 서문~북문 구간과 북문의 위치는 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추정도와 일치한다. 특히 추정 북문지 좌측부터 임정사 뒤편의 얇은 둔덕에는 성벽의 기초시 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된다. 북문~동문 구간은 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추정도와 거의 일치하나 동문지 위치는 다르다. 따라서 전체 평면형태는 남북간으로 긴 장타원형으로 추정된다. 특히 남문~서문 구간은<성주읍지도>와 <성주읍지도>에서 성벽 일부분만 표기된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성주구지도>를 제외한 3개의 고지도에 남문~서문 구간 성벽 표시가 없다. 아마도 이곳 지형이 급경사의 구릉 단애지대로 이것이 자연 성벽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성주읍지도>, <성주구지도>, <성주읍지도>에는 성첩이 설치한 석성인 점도 서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성주읍지도> 경우, 북쪽 성벽에 “城堞頽落”이라 적혀 있어 19세기 말에 이르러 읍성의 퇴락이 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6>.

2. 도로와 가로망

조선 초기의 읍성내 공간은 중심에 관아와 객사가 상징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이 중심을 매개로 가로망이 연결된다. 이러한 가로체계는 자연적 입지와 성곽의 형태에 따른 성문의 위치, 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읍성 내부는 성문을 통해서만 주변 외부지역간의 주요 도로망과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다. 고



그림 6. 성주읍성의 추정 위곽도
(1: 고지도상의 추정형태, 2: 본 연구자의 추정형태
3: 김한기의 추정형태, 4: 構(해자)의 추정위치)

지도에 나타난 읍성의 입지는 구릉형이고,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동서남북 4개의 城門¹⁶⁾이 있다. 『성주읍지도』에 나타난 성내 도로망은 東門(關靑門)-客舍-閉門樓-別包廳과 客舍를 지나 獨山 아래로 이어지는 간선도로가 표시되어 있고, 소로 표시는 생략하였다. 또 성밖 도로망은 읍성 화면을 동·서쪽만 부각시킨 관계로 크게 4갈래만 확인된다. ① 읍성 서쪽의 伊川을 건너 西大路-場市-民村-夢窩碑閣 앞-홍살문-東門-성내 주도로 ② 西大路-場市-獨山아래의 民村-성내 주도로에 접속 ③ 大丘通橋-民村-夢窩碑閣 앞-홍살문-東門-성내 주도로 ④ 동북쪽에서 홍살문-성내 주도로 길이 있다. 한편 『大東輿地圖』와 『嶺南總圖』에 표기된 외부 도로망은 6갈래로 분류된다. 『성주읍지도』와 비교해 남서동쪽의 4갈래 길은 동일하고 ① 벽진에서 伊川을 건너 서문고개를 지나 서문으로 들어오는 길 ② 김천·초전방향에서 대야현을 넘어 인현산길을 따라 북문으로 들어오는 길과 지례·벽

16) 성문에 관한 기록은 『新增東國輿地勝覽』과 『京山志』에 동·서·북 3門, 『星山誌』, 『星州牧邑誌』, 『星州邑地圖』에는 동·서·남·북 4門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기록을 통해 볼 때, 대체로 18세기 이후에 남문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방향에서 사직단을 지나 伊川을 건너 북문으로 들어오는 길이 추가된다. 『성주읍지도』에서 읍성 서쪽과 북쪽이 자세히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길은 파악되지 않는다. 『경상도읍지』 星州牧, 道路條에 “州城外有東西南北路”라 하여 성밖에 동서남북으로 4개의 길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앞서 고지도와 거의 일치하는 도로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성내 도로망에 관한 자료는 없다. 다만 성문을 통해 성안밖의 연결이 가능하므로 성문의 위치와 數로서 읍성 내부의 도로망을 역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즉 읍성 내부의 주요 도로체계와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성문이며, 이때 내부 도로망은 성문과 성문을 연결하였다는 점이 문헌과 고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지방읍성은 거의 동서남북 4개의 성문을 가진 것이 통례이었다. 따라서 4개의 성문을 연결하는 십자형의 가로망을 간선으로 하고 이 가로들에 평행 또는 직교하여 일정한 간격을 가진 소로들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⁷⁾.

3. 읍성내외의 공간구성과 시설물

읍성의 규모와 기능면에서는 조선시대 경상도 서남지방의 大邑城에 속한다. 『성산지』, 『경산지』, 『성주읍지도』 등의 기록을 보면, 전형적인 조선시대 읍성의 건물과 시설물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읍성내외의 공공건물 및 시설물로는 크게 ① 행정시설(항리업무공간 포함) ② 鄉內 士族관련 시설 ③ 제사시설 ④ 기타 사회기반시설로 구분되며, 공간배치상으로는 성안과 성밖으로 대별된다<표 6>. 읍성의 공간배치계획에 영향을 미친 이념적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風水地理思想과 周禮考工記의 都城制이다. 전자의 경우, 성주읍성은 가야산이라는 주변산세를 배경으로 伊川과 白川을 이용한 방어공간과 정주지를 적절히 제공해 주고 있다. 후자의 경우 왕을 상징하는 객사를 중앙에 입지시킴으로써 공간의 중심에서 각 성문을 잇는 동서·남북축의 의미적인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읍성의 중앙에 동헌이나 객사를 두어 읍성공간이 지니는 공간배치의 이념은 통치이념의 상

표 6. 각종자료의 건물구성

구분	문헌자료	행정시설	향내 사족시설	제례 시설	사회기반시설
城內	『星州邑地圖』	몇동의 건물이 분산배치, 건물명은 없음			
	『星主舊地圖』	객사, 아사		성황당	
	『星州邑基圖』	객사, 내아, 동헌, 작청, 관청, 장교청, 군뇌방, 추소, 편자방, 군기고군기직방	연계당 향청 회로당 농서군공비각 제장군쌍충비각	성황당	동문 민가촌 도로
	『輿地圖書』	객사, 동서헌, 사시헌, 청민당, 군관청, 정결청, 인리청, 교련청	회로당	사직단 厲檀	석빙고
	『星山誌』		향사당		
	『京山志』	백화헌, 사시헌, 의국, 양무당			향교
城外	『星州邑地圖』			관왕묘 사직단 厲檀	향교, 獄
	『星州舊地圖』			관왕묘	향교, 獄
	『星州邑基圖』	군관청, 수직청, 사령청, 별포청, 전채소, 수조소, 주사, 증반소, 책공방, 양무당	몽와비각	무안왕묘	홍살문 場市 蓮池 橋 塹壕 도로
	『輿地圖書』	장관청, 열병헌, 입풍루, 청운루, 동정, 남정		관왕묘 성황당 사직단	향교, 獄
『星山誌』			사직단 厲檀		

징하기도 하다. 따라서 읍성의 기능은 방어·정주적 공간과 정치·사회적 이념을 동시에 내포하는 시설물임을 의미하고 있다<표 6>.

이들 자료중 성 내외로 각 시설의 분포 및 공간배치가 비교적 상세히 기록된 자료는 19세기 말 제작의 <성주읍지도>이다. <성주읍지도>의 경우, 읍성 四門안에 건물 11棟이 그려져 있는데, 건물명이 표기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읍성 밖으로는 伊川이 감싸 들고 동북쪽으로는 獄과 향교, 동방사지 5층석탑, 厲檀, 북문 북쪽에 社稷壇, 남문 밖에 關王廟가 표기되어 있다. <성주구지도>에는 東門 안 동쪽에 客舍, 서쪽에 衙舍가 있고, 객사 북쪽으로 건물명이 없는 건물 2동이 표기되어 있다. 또 읍성 서쪽에는 城隍堂이 있다. 성밖 동쪽에는 홍살문과 향교, 동방사지 5층석탑이 있고, 동북쪽에는 獄이 있다. 읍

17) 金漢起, 조선시대 지방도읍의 공간구성과 기능 성주목·밀양도호부·청도군·고령현의 경우, 1999, 경북대 석론, 28쪽.

성 밖 서쪽에는 관왕묘가 있다. <성주읍지도>에는 성안 중심부에 객사, 동헌, 아사의 핵심 3건물이 있고, 그 주변은 작청·관청·추사·장교청·무기직방·무기고·군뇌방 등의 행정건물들이정연하게 배치되어있다. 또 객사와 동헌사이의 남쪽에는 수직청·수조소·주사·전제소·관노방·책공청·별포청·사령청·훈반소·장교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일정하게 분산배치되어 있다. 이들 행정시설건물의 종류와 명칭은 고을의 행정상 위치, 규모,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향내 사족관련 건물인 회로당, 향청, 연계소 3동이 성안의 동헌 북쪽 산등성에 근접배치되어 있다. 그 외 농서군공비각이 외동헌 일곽 북동쪽 외딴 곳에, 제장군쌍충비각이 객사 동쪽 외곽에 각기 위치하고 있다. 또 몽와비각이 성밖 동남쪽의 민가촌사이에 있다. 한편 각종 제사시설로는 성안 서문 북쪽 근처에 城隍堂, 성밖 남쪽 언덕에 武安王廟가 자리잡고 있다. 그 외 각종 상업 및 사회기반시설로 동문 밖에 홍살문과 서대로, 민가촌 그리고 고령통교와의 접점지역에 場市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蓮池 3곳이 있는데, 무안왕묘 남쪽, 독산 남쪽, 몽와비각 남쪽의 민가촌 사이 각기 위치하고 있다. 또 고령·대구방면으로 이천을 가로질러 고령통교와 대구통교가 표기되어 있고, 이천변에는 堤堰과 성안·밖으로 민가들이 조성되어 있다.

이처럼 각 <고지도>에 나타난 읍성 안팎의 공간구성과 건물배치를 살펴 본 결과, <성주읍지도>, <성주구지도>는 성주목 전체중 일부분에 읍성이 표기된 관계로 읍성 안팎의 건물배치나 공간구성이 간략한 내용만 알 수 있다. 다만 읍성 중심에 객사¹⁸⁾를 두고, 객사 서쪽으로 외·내동헌, 내아 등 지방관아에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행정관청 건물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주읍지도>는 각종 행정시설의 건물 동쪽으로 군사기능의 건물, 북쪽으로는 향내 사족관련 건물들이 배치되는 규범성을 보인다. 특히 양무당, 장관청, 별포청, 사령청의 군사기능 건물과 수직청, 훈반소, 수조소, 관노방, 주사, 전제소 등 각종 행정관청건물이 객사와 동헌 남쪽의 성밖지역에 배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들이 성밖에 배

치된 것은 성안에 이들 많은 건물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던 것에 기인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남문 밖 서대로 주변에 형성되어 있다. 민가는 성안 객사와 동헌 주변지역, 성밖으로는 동문 밖의 가로변과 伊川 주위에 큰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객사와 동헌 주변의 민가촌은 주요 행정기관 근무자의 업무별 집단 거주지로 판단된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경산지』(1677년), 『여지도서』(1757년), 『해동지도』(18세기), 『경상도읍지』(1832년), 『성산지』(1937년) 등의 문헌에서 파악되는 건물배치 및 구성을 보면 읍성 중심에 객관이 있고, 그 주위로 아사를 비롯한 주요 행정기관들이 배치되어 있다. 객관 동쪽에는 군사관련 건물이 배치된 점은 <성주읍지도>와 유사한데, 이는 조선시대의 보편적인 읍성 공간구성이 적용된 결과이다. 이를 『성주읍지도』와 성주 관련 문헌기록과 비교하면, 행정시설건물 수와 종류, 명칭에서는 차이가 있고, 읍성 내·외의 공간배치 및 구성체계에서는 시기적 차이뿐만 아니라 표현상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성주읍지도>, <성주구지도>는 서문 부근에 성황당이 배치된 점, <성주구지도>에 향교 앞 홍살문이 <성주읍지도>에는 동문 앞에 설치된 점은 주목된다. 또 군사적 기능인 장관청, 양무당, 열병헌, 교장 등이 성밖에 배치된 점, 창고건물이 서문 밖에 있는 점이 특징이다. 더욱이 <성주읍지도>에는 60여동의 각종 행정관련 건물과 수십동의 민가가 읍성 안팎으로 배치된 것은 회화적 자료이기는 하나 조선후기 읍성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 판단된다. 이들 각종 건물과 시설물들은 동학 농민운동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고유기능이 변형되었거나 파괴되어 흔적도 없는 실정이다.

IV. 성주읍성의 변천과정

성주읍성의 형성과 도시공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대별 주요변화과정 등을 지도자료를 통해 살펴 보았다. 분석은 각 시대별로 현존하는 성주읍지도, 지형도, 도시계획도 등을 바탕으로 도식화하였다<표 7, 그림 7~12>.

1. 조선~개화기까지

성주읍성의 경우 여말선초의 토성이 조선 중종 15

18)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海東地圖』에는 百花軒을 東軒이라 하였고, 『京山志』, 『慶尙道邑誌』, 『星山誌』에는 客館이라 하였다.

표 7. 성주읍성의 시대적 변천

연 대		내 용
시 대	년 대	
고려	·	토성의 형태
조선	중종 15년 (1520)	석성으로 개축
	선조 24년 (1591)	석축으로 개조
	18세기	성문의 수효가 3개에서 4개로 변화
	1894	동학농민 항쟁때 성의 형태 파괴
일제 강점기	1906	읍성 철거
	1934	“조선 시가지 계획령 “ 미적용
현대	1979	성주면이 읍으로 승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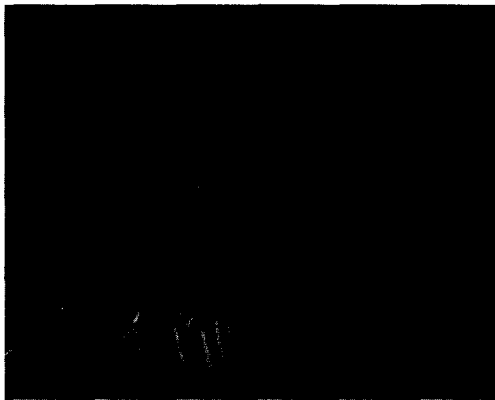


그림 7. 현재 성주읍성내의 항공촬영도

년(1520)에 석성으로 개축되었으며, 선조 24년(1591년)에는 왜적을 대비하면서 석축 개조와 더불어 4개의 성문이 건설되었다. 읍성 내부의 가로체계는 이때 크게 정비되는 등 대규모 읍성 위상에 맞는 규모와 시설, 가로체계가 형성된 시기로 보인다.

성내 도로망은 성문을 통해 성안밖의 연결이 가능하므로 성문의 위치와 수로서 읍성 내부의 도로망을 역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즉 읍성 내부의 주요 도로체계와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성문이며, 이때 내부 도로망은 성문과 성문을 연결하였다는 점이 문헌과 고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산지』에 성문은 동·서·북 3門만이 기록되어 있고, 『성산지』에는 동·서·남·북 4門이 기록되어 있다. 또 고지도인 <성주읍지도>, <성주구지도>에는 東門만 확실히 그려져 있고, <성주읍지도>에는 四門이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사료들을 근거로 볼 때, 성문은 18세기 경에 3門이었다가 그 이



그림 8. 서문지 전경 (現 성주여고 정문)



그림 9. 북쪽성벽 전경 (現 임정사 뒤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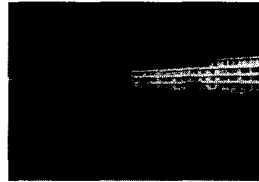


그림 10. 객사지 전경 (現 성주초교)



그림 11. 내동한지 전경 (現 성주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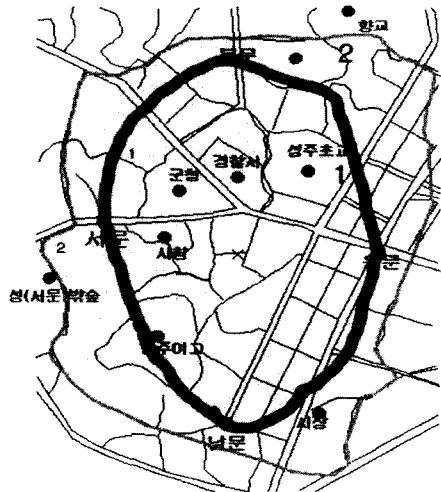


그림 12. 성주읍성의 변천 (1: 조선시대, 일제시대의 범위, 2: 현재의 성주읍의 범위)

후에 남문이 추가되어 4門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남문이 후대 설치된 것은 남쪽이 산으로 막힌 지형조건 탓에 성문과 도로가 크게 필요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3門이면 도로패턴은 3각형이나 T字形, 4門이면 대개 十字形의 가로망체계¹⁹⁾

19) Ibid 2), pp. 128-130. 조선시대 읍성에서 지배적인 간선 도로 패턴은 三門의 T字形이고, 그 다음으로 十字形이다.

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가로망은 일제 강점기때 실시된 도로확장과 “조선시가지계획” 정책이 미치지 않아 지금의 시가지 및 도로노선에 근간이 되어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1894년 동학농민항쟁 때 농민군이 성주읍성을 공격하여 성문과 성곽이 소실되면서 예전의 형태가 변형되기 시작하였다.

2. 일제강점기

1895년 일제가 조선침략을 목적으로 한반도의 측량을 실시하기 시작하고, 1906년 일제침탈이후 본격적으로 읍성이 철거되면서 읍성 내·외부공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일제의 “시구개정사업”에 의하여 성곽이 철거되면서 간선도로의 폭도 다소 확장되었다. 또 읍성 중심부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성밖으로 영역이 확장되는 변화도 일어났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다른 지방과는 달리 1934년에 실시된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도시계획이 이곳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신교통 수단인 경부선 철도가 개설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 도로체계에는 큰 변화없이 존속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읍성은 성벽이 철거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도시영역이 성밖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3. 해방이후~현재까지

해방 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1979년 성주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서서히 진행되었다. 이때 과거 읍성의 가로체계를 근간으로 한 시가지 개발이 실시한 결과, 성밖 공간으로 도시기능이 확장되기 보다는 주로 성안의 주거면적이 점유가 증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읍성 내·외의 가로체계는 일제강점기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도로의 확장, 빈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무계획적인 건물신축등으로 일부 수정되거나 확장되었다.

V. 결 론

조선후기 성주목의 읍성 공간구조나 건물배치구조에 관한 자료는 현존하는 각종 고지도, 고문헌 등과 성주읍성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다. 이들 각종 자료를 토대로 조선후기 성주읍성의 평면 및 공간구조와

건물 배치구성, 변화양상 등을 비교·고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읍성의 입지는 성주읍 북쪽의 초전면 인현산(해발 185 m)을 진산으로 하고, 남동쪽의 선남면 성산(해발 389 m)을 안산으로 하는 얇은 능선 말단부에 평지를 포함한 평산성이다. 그리고 읍성 서쪽에서 동북쪽으로는 낙동강의 지류인 이천이 휘감아 흐른다. 읍성 축조는 麗末에 토성이 유존하다가 조선 중종 15년(1520) 석성으로 개축하고, 선조 24년(1591) 溝와 城堞이 설치되었다. 평면배치는 <성주읍지도>, <성주구지도>, <성주읍지도>가 타원형, 『여지도서』에는 원형으로 표기되어 있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보고서와 김원기 논문에서 추정된 위곽도는 타원형이나 성문 위치와 일부 축성구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성주읍 지적도와 현장조사, 주민대담을 통해 추정위곽도를 작성한 결과, 북문~동문, 동문~남문 구간과 동문지, 남문지는 새롭게 제시되었다.

2) 읍성 안팎의 도로망은 도로 내외부의 연결이 성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성문의 위치와 수로서 읍성 내부의 도로망을 추정할 수 밖에 없다. 고문헌 및 고지도에서 밝혀진 읍성의 성문은 18세기 경에는 동·서·북 3門이었다가 후에 남문이 추가되어 4門이 설치되었다. 이때 가로망은 3門이면 3각형이나 T字形, 4門의 경우에는 대개 十字形의 가로망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성주읍지도』에는 동문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수평가로와 객사 남쪽으로 수직가로는 연결되는 T字形 가로망체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건물 배치 및 공간구성은 각종 고지도의 경우에 성주목 전체를 다룬 관계로 읍성이 매우 간략히 표기되어 상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읍성안에 객사, 관아를 비롯한 지방 주요 행정기관만이 간략히 표기된 점, 서문 부근에 성향당이 있었음이 주목된다. 또 서문 밖에 관왕묘, 동문 밖에 옥, 여단, 향교, 북문 밖에 사직단 등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지도중 가장 상세한 <성주읍지도>는 읍성 중앙 동쪽에 객사가 있고, 그 서쪽에 외·내동헌이 자리잡고 있어 일반적인 배치구성을 따르고 있다. 특히 내동헌은 수령의 정무공간인 청민당과 주요 핵심관청, 외동헌은 사시헌과 내아가 인접하여 병렬배치된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군사기능의 건물이 객사와 동헌의

동쪽 외곽에 배치되어 있다. 또 동헌 북쪽의 산등성에는 향내 사족 및 지방자치기구의 건물인 鄉廳, 會老堂, 蓮桂所 3동이 인접배치된 점도 주목된다. 성안 서쪽 끝 산등성에는 성황당, 성밖 남쪽 산등성에 무안왕묘가 있다. 특히 연계소와 무안왕묘는 현 위치에 현존하는 건물이며, 성황당은 타 지역과 달리 성안에 설치된 점은 앞서 고지도와 동일하지만, 타 지역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성안밖에 형성된 민가촌과 남문 밖의 시장도 지금의 위치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과 대구방면으로 교통소통과 치수의 목적으로 설치된 통교가 있었고, 伊川의 범람을 막기 위한 防禦으로 堤堰도 설치되었음이 알 수 있다. 한편 성밖 숲이 『성주읍기도』에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일제강점기때의 읍성은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도시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신교통 수단인 경부선 철도가 개설되지 않은 관계로 읍성범위를 중심으로 도시성장이 진행되었다. 해방이후 ~현재까지는 1979년 성주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과

거와 같은 가로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개발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서문~북문~동문으로 이어지는 일부 구간은 기반시설이 유존하고 있으므로 향후 성주읍 성내·외의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이며 계획적인 성주읍성의 보존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이상구(1983), 조선중기의 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0), 문화유적분포지도(성주군).
3. 星州郡(1998), 星州郡志.
4. 李元禎(1677), 京山志.
5. 都宇權·崔柱河(1832), 星州牧邑誌.
6. 李舜欽·裨定坤(1937), 星山誌.
7. 서울대학교규장각, 성주읍기도, 18세기
8. 강 현(1995), 읍성의 공간구조 및 건축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9. 이영무(1988), 조선후기 성읍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0. 대한건축사협회(1992), 「한국전통건축 제1집」, 「官衙建築」.
1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0), 성주군, 성주읍성지표조사 보고서.